

# 留学僧의 入唐과 從者の 역할

- 丁雄萬을 그 예로 하여 -

이 유 진\*

yjlee002@hanmail.net

## Contents

1. 머리말
2. 관계 사료의 검토
3. 丁雄萬의 출신
4. 從者로서 丁雄萬의 역할
5. 맺는말

## Abstract

丁雄萬は豊前国仲津国丁里周邊を出身地とする渡来系氏族の一員であり、彼がもつ海洋における技術とともに、豊前国が大宰府管内の国であったことにより‘水手’として大宰府に在籍していたといえよう。円仁が多くの水手の中から彼を付き人として選び、求法の旅に同行させた理由を推論すると、彼が渡来系氏族であることや、後に円珍の‘行者かつ訳語’として史料に現れる程、漢語に長けていたことが挙げられ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また、彼の仏道に対する深い帰依の心が円仁に見いだされ、仏道の修行者としての行者に抜擢されたのだと思われる。彼が円仁のみでなく、円珍の渡唐にも参加していることは、僊従と本主との関係のように、円仁と丁雄萬の間に人格的な関係が存在し、その縁故によって円珍にも伴われたと考えられるのではないか。彼の語学力は約十年に及ぶ円仁との唐での活動の中で身につけたものと考えられ、故に円珍の唐での生活においても積極的にその語学力を生かしてサポートしていたために、特に‘訳語’と記されたのではなかろうか。

**Key Words** : 丁雄萬, 行者, 訳語, 円仁, 円珍

## 1. 머리말

사실상 최후의 견당사인 承和遣唐使(838)의 일원으로서 還學僧 円仁이 入唐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는 특히, 在唐新羅人の 활동과 관련하여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sup>1)</sup> 円仁은 환학승의 신분이었으므로 견당사가 귀국할 때 함께 귀국해야 했지만 그는 견당사일행과 헤어져 당에 남아 약 10년간(838~847)의 구법활동을 행하였다. 이 구법여행에는 그의 弟子僧과 從者가 동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丁雄萬<sup>2)</sup> 이른바 丁勝小鷹(呂)라는 인물은 円仁의 구법활동에 동행하여 그의 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후에 円珍이 留學僧으로 入唐(853~858)하는 데에도 訳語로서 동행하여, 비교적 많은 사료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円仁의 여행기로 알려져 있는 『入唐求法巡禮行記』<sup>3)</sup>를 보면 丁雄萬은 선원(水手)으로서, 그리고 円仁의 行者로서 기록되어 있으며, 円珍이 在唐中이나 귀국 후에 그 활동을 기록한 『行歷抄』나 당과 일본의 관청에 제출한 여러 公文書 등에는 訳語로서, 또한 行者로서의 丁雄萬의 역할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丁雄萬의 활동에 대하여 平沢加奈子氏가 비교적 상세히 고찰하였으나<sup>4)</sup> 승려의 종자로서 行者의 역할만을 강조한 감이 든다.

본 小考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사료 상에 남아 있는 丁雄萬의 활동을 概觀하고, 그가 담당하고 있던 역할들을 통해 入唐留學僧에게 있어서 從者는 어떠한 의미를 지닌 존재였던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丁雄萬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유학승의 從者가 담당했던 역할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초적 단계로서 丁雄萬의 예를 검토하고자 한다.

- 1) 그 대표적 연구 성과로는 金文經(2001) 『역주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權惠永(2005) 『재당신라인사회 연구』, 일조각, 小野勝年(1966)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鈴木學術財團, 佐伯有清(1978) 『最後の遣唐使』講談社, 同(1989) 『円仁』, 吉川弘文館 등
- 2) 사료에는 丁勝小鷹(呂), 丁雄滿, 丁雄萬, 丁滿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문 중에서는 사료의 인용 이외에는 모두 ‘丁雄萬’으로 표기를 통일한다.
- 3) 이하 『巡禮行記』로 약칭
- 4) 平沢加奈子(2003) 『渡唐における從者の活動—丁雄萬を題材として』 『古代東アジアの国家と異文化間交流』, 東アジア異文化間交流史研究会, pp.63~68

## 2. 關係 史料의 검토

入唐留學僧인 円仁·円珍과 關係하여 그 從者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丁雄萬에 關係한 史料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史料1. 『巡禮行記』卷1 承和 5年(838) 8月 1日

八月一日 … 齋後 請益(円仁)留學(円載)兩僧出牒於使衙 請向台州国清寺 兼 請被給水手丁勝小麿(呂) 仕充求法馳仕 …

史料2. 『巡禮行記』卷1 承和 5年(838) 8月 4日

四日 … 還學僧円仁 沙彌惟正惟曉 水手丁雄滿 右請往台州国清寺尋師 便住 台州 為復從台州却來 赴上都去 …

史料3. 『巡禮行記』卷1 開成 4年(839) 4月 4日

四日卯時 請益僧及惟正 惟曉 丁雄滿 為相隨相公往密州留住 下第二船 遷駕 第八船 …

史料4. 『巡禮行記』卷1 開成 4年(839) 4月 5日

五日 … 請益僧 惟正 惟曉 水手丁雄滿四人 下船留住岸上 …

史料5. 『巡禮行記』卷1 開成 4年(839) 7月 28日

… 求法僧等便作狀 報留却之由 其狀如左 日本国僧一人 從小師二人 行者一人 留在山院 … 日本国僧円仁狀帖 從僧惟正 僧惟曉 行者丁雄萬奉帖

史料6. 『巡禮行記』卷2 開成 4年(839) 9月 3日

… 先在青寧鄉赤山寺院 日本国船上抛却僧三人 行者一人 … 奉貼勘問抛却 赤山院

日本国僧三人 行者一人 …

史料7. 『巡禮行記』卷2 開成 5年(840) 2月 24日

… 僧円仁弟子惟正惟曉 行者丁雄滿並隨身衣鉢等 牒 …

사료8. 『巡礼行記』卷2 開成 5年(840) 3月 2日

… 日本国求法僧円仁弟子惟正惟曉 行者丁雄滿 …

사료9. 『巡礼行記』卷2 開成 5年(840) 3月 5日

… 請蒙賜公驗 往赴五台等名山及諸方処 巡礼聖跡 尋師学法 僧円仁弟子惟正惟曉 行者丁雄滿 緣身剃刀衣鉢等 …

사료10. 『巡礼行記』卷2 開成 5年(840) 3月 11日

… 扨日本国僧円仁等狀 請公驗 往五台并名山及諸方 巡礼聖跡 尋師学法等 僧円仁弟子惟正惟曉 行者丁雄萬 并隨身剃刀衣鉢等 …

사료11. 『巡礼行記』卷3 開成 5年(840) 8月 23日

… 日本求法僧円仁 弟子僧惟正惟曉 行者丁雄萬 並連青州公驗白…

사료12. 『巡礼行記』卷3 開成 5年(840) 8月 24日

… 日本国僧円仁 弟子僧惟正惟曉 行者丁雄萬 …

사료13. 『巡礼行記』卷3 会昌 元年(840) 5月 1日

一日 … 遣行者丁雄萬謝 …

사료14. 『巡礼行記』卷3 会昌 元年(840) 8月 7日

… 日本国求法僧円仁 弟子僧惟正惟曉 行者丁雄萬 …

사료15. 『巡礼行記』卷3 会昌 2年(842) 3月 12日

… 日本国求法僧円仁 弟子僧惟正惟曉 行者丁雄萬 敬送清涼山佰伍拾僧供  
… 日本国僧円仁 并弟子惟正惟曉 行者丁雄萬等 …

사료16. 『巡礼行記』卷3 会昌 3年(843) 6月 29日

… 日本国僧円仁 弟子僧惟正惟曉 行者丁雄萬 …

사료17. 『巡礼行記』卷4 会昌 6年(846) 2月 5日

二月五日 偽取楚州劉慎言処寄着經論等 差丁雄萬 就閩方金船 …

사료18. 『巡礼行記』卷4 会昌 6年(846) 6月 17日

十七日 … 付李国遇送来 便知前遣南州丁雄萬 統欲発来 …

사료19. 『巡礼行記』卷4 会昌 6年(846) 6月 29日

二十九日 丁雄萬来到兼得楚州主人劉慎言書 …

사료20. 『巡礼行記』卷4 会昌 7年(847) 7月 13日

十三日 遣丁雄萬兼雇一人 …

사료21. 『円珍福州公驗』鎮西府公驗

… 僧円珍 字遠□ 從者 僧豊智 沙弥閑静 訳語丁滿 物忠宗 經生の良 白阿古 滿 大全吉 …

사료22. 『台州牒』

当州今月壹日 得開元寺主僧明秀狀 称日本国内供奉賜紫衣僧円珍等參人 行者肆人 都梁人 從本國来 勘得訳語人丁滿狀 謹具分析如後 僧參人

壹人 内供奉賜紫衣僧円珍

壹人 僧小師豊智

訳語人丁滿 行者的良 已上巡礼天台五台山 及遊歷長安

壹僧小師閑静 行者物忠宗 大全吉 并隨身經書 并留寄在国清寺 本國文牒并公驗共參道 …

사료23. 『行歷抄』大中 9年(855) 5月 25日

丁滿入城 於常樂坊近南門街 …

사료24. 『尚書省司門』<sup>5)</sup>

福寿寺僧円珍年肆拾參 行者丁滿年伍拾 并隨身衣道具功德等

韶広兩浙以來關防主者 上件人式 今月 日得万年県申稱 令欲歸本貫觀省 并往諸道州府 巡礼名山祖塔 恐所在關津守捉不練行由 請給過所者 准狀勘責狀 同此 正准給 符到奉行

主事 袁參

都官員外郎判 祇

令史 戴敬棕

書令史

大中玖年拾壹月拾伍日下

이상이 史料에서 확인할 수 있는 丁雄萬에 관한 기록이다. 『巡礼行記』卷1 承和 5년(838) 8월 1일조에 ‘丁勝小磨(呂)’라고 적은 것을 시작으로 이후의 기록에는 ‘丁雄萬(丁滿)’이라 적혀 있다. 그의 이름이 丁勝小磨(呂)에서 丁雄萬(丁滿)으로 바뀐 것은 당시 중국식의 한자 표기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 상에는 그의 이름만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분이나 지위를 알 수 있는 호칭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水手’, ‘行者’, ‘訳語’ 등이 그것이다. 동일인물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표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丁雄萬이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행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在唐生活 중에 그의 신분이 변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丁雄萬이 처음으로 사료에 등장한 『巡礼行記』卷1 開成 3년(838) 8월 1일조(사료1 참조)에 의하면 円仁은 ‘선원(水手)’인 丁勝小磨(呂)를 자신의 구법순례에 참가시켜줄 것을 留学僧인 円載와 함께 연서하여 遣唐大使인 藤原常嗣에게 請願하고 있다. 円仁의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져 同年 8월 4일조에 실려 있는 揚州의 州庁에서 온 質問狀에는 還學僧 円仁, 沙弥 惟正·惟曉와 함께 水手 丁雄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사료2 참조). 이렇게 처음에는 承和遣唐使 일행에 선원(水手)의 자격으로 승선한 丁雄萬은 당에 체재하던 중 견당대사의 허가를 얻어 円仁의 시종(從者)이 되었다. 이후 行者로서 円仁과 행동을 함께하며 구법활동을 마친 丁雄萬은 다시 円珍의 입당유학에 동행하는데(853) 이때에

5) 園城寺所藏文書

는 訛語의 신분으로 변모해 있다(사료21 참조).

따라서 丁雄萬에게 부여되어 있는 水手, 行者, 訛語 등의 호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가 종자로서의 담당하고 있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3. 丁雄萬의 출신

丁雄萬이 종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살피기에 앞서 그의 출신 및 등장배경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丁雄萬의 출신에 대해서는 小野勝年氏의 설명이 통설이 되어 왔다. 小野氏에 의하면 “丁勝小磨(呂)는 丁이 姓이고, 勝小磨(呂)가 이름이다. 丁은 고대에 公用을 위한 勞役に 동원되던 남자를 의미한다. 男丁, 仕丁, 驅使丁 등이 이른바 丁에 해당하였으므로 이것을 따서 姓으로 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고 한다.<sup>6)</sup>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大宝 2년(702) 豊前国 仲津郡 丁里의 호적을 살펴보면 여기에는 ‘丁勝’이라는 氏名(姓)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sup>7)</sup> 이러한 호적의 기록을 감안한다면 ‘丁勝’까지를 그의 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丁’은 小野氏가 설명한 것처럼 仕丁 등 그 신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仲津郡의 ‘丁里’라는 지명에 근거하는 氏姓이었을 가능성도 있다.<sup>8)</sup> 일본의 『六国史』나 『正倉院文書』등의 사료에는 ‘(地名)+勝’이라는 氏姓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sup>9)</sup> 이때의 ‘勝’은 村主라고도 기록되는 계급적 칭호(カバネ)를 의미한다<sup>10)</sup>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丁勝’이라는 그의 성도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본다면 丁雄萬의 이름인 丁勝小磨(呂)는 丁은 氏名, 勝은 가바네(カバネ)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丁勝까지가 성,

6) 小野勝年(1989) 『入唐求法巡礼行記の研究』~第1卷, 法藏館, p.163

7) 『大日本古文書』~卷1, pp.163~214

8) 平沢加奈子 앞의 논문, p.64

9) ‘地名 + 勝’의 예는 일본 고대 사료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日本書紀』~卷28 天武天皇 上 元年 6月 丙戌 ‘駒田僧忍人’ 등의 예가 여기에 해당한다.

10) 平沢加奈子 앞의 논문, p.64

小磨(呂)를 이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新撰姓氏錄』山城國諸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기록을 보면 勝氏라는 씨족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勝氏 집단에서 더욱 주목할 만 한 것은 이들이 百濟國으로부터 온 한반도의 渡來人 집단이라는 것이다. 佐伯有清氏도 遣唐使船에 승선한 선원들 중 다수가 渡來系의 씨족으로 구성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할 때 이들과의 연관성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이상의 검토로부터 丁勝小磨(呂)는 ‘丁勝을 성, 小磨를 이름’으로 하는 인물이며, 豊前國 仲津郡 丁里 주변 출신으로 한반도 渡來系의 씨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丁勝小磨(呂)를 円仁이 당에 체류하면서 자신의 종자로 삼고, 『巡禮行記』에 唐風의 한자식 표현으로 표기한 이름이 바로 丁雄萬인 것이다.

다음은 丁雄萬이 承和遣唐使의 일원으로 入唐할 당시의 선원(水手)이라는 신분에 대해 살펴보자. ‘水手’에 대한 기록은 『延喜式』大藏省式入諸蕃使條에 그들의 대우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 史生·射手·船師·音声長·新羅奄美等 詔語·卜部·留學生·學問僧·僱從 各 繩 4필, 면 20둔, 포 13단 … 水手長 繩 1필, 면 60둔, 포 2단, 水手 各 면 4둔, 포 2단, 掩師·挾抄·水手長 및 水手 各 各 惟頭巾, 巾子, 腰帶, 紫布黃衫, 옷, 바지 및 汗衫, 잠방이, 紫布半臂를 준다 …<sup>12)</sup>

이 연희식의 기술에 의하면 水手는 공식적인 견당사의 일원으로서 대우받고 있다. 水手는 船工이나 挾抄(뱃사공)등과 함께 선원으로서의 실무적 측면을 가진 기술자의 신분인 것 같고, 水手長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巡禮行記』에도 견당사 일원들에 대하여 ‘官人已上’과 ‘僱人已下水手已上’이라는 두 층의 구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sup>13)</sup> 이때의 ‘僱人已下水

11) 佐伯有清(1983) 『承和の遣唐使をめぐる諸問題』 『日本古代政治史論考』, 吉川弘文館, pp.43~49

12) 『延喜式』卷30 大藏省式 入諸蕃使

13) 『巡禮行記』卷1 開成 4년 4월 16일

手已上'은 官人과 비교하여 비교적 하위의 실무적 기술선원 등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水手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続日本後紀』承和 3년 8월朔조에 第3船의 水手들 16인이 対馬島 南浦에 표착한 기록이 있고,<sup>14)</sup> 다음 날인 8월 2일조에는 判官부터 水手까지는 入京하고, 水脚은 향리로 돌아갈 것을 허가하고 있다.<sup>15)</sup> 또한 遣唐使船이 귀국한 후인 承和 6년 9월 丙午조에는 遣唐大使인 藤原常嗣로부터 水手까지 冠位를 받았으며,<sup>16)</sup> 다음해인 承和 7년 9월 戊戌조에는 判官으로부터 水手까지의 391인에게 加階한 기록이 보인다.<sup>17)</sup>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해 볼 때 水手는 공식적인 견당사의 일원으로서 견당사 선박에 조직되어 있는 실무적 즉 선원으로서의 기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水手들의 출신지는 어디였을까? 水手 중에는 발해와 신라출신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sup>18)</sup> 이러한 한반도의 渡来人 출신 이외에도 水手는 隱岐国이나 豊前国·豊後国 등에서 海部나 柁師 등 해양의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大宰府 등에 배치되었다고 하는 설도 있다.<sup>19)</sup>

또한 『日本書紀』에 의하면 이미 오래 전부터 紀伊国지역에도 海部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sup>20)</sup> 이러한 지역의 선원이나 해양기술자 출신들이 견당사 일행에 선발되었던 水手로 임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丁勝小麿(呂)는 豊前国 仲津郡 丁里 주변을 출신지로 하는 渡来系 씨족의 일원으로 해양기술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살던 豊前国이 大宰府管内의 国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水手'로서 大宰府에 在籍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14) 『続日本後紀』承和 3년 8월 戊戌朔 大宰府馳駢 奏遣唐使第三船水手等十六人駕編板漂着之狀

15) 『続日本後紀』承和 3년 8월 己亥 … 使人等六百有余不堪供給 伏望準宝字宝龟例 使人入京 水脚還郷 又留判官録事各一人 与府司共修造破船者 並依来奏 使等宜知此情 判官已下至水手 惣自舟途入京還者 脱有不欲更入都者随願駐之

16) 『続日本後紀』承和 6년 9월 丙午 … 故是以常嗣始水手至冠位上賜治賜

17) 『続日本後紀』承和 7년 9월 戊戌 定入唐廻使判官已下水手已上百九十一人之等第 …

18) 『延喜式』卷30 大藏省式 入諸蕃使 … 其渤海新羅水手等 …

19) 松原弘宣編(1995) 『瀬戸内海における交流の展開—古代王権と交流6』, 名著出版, pp.110~

20) 『日本書紀』持統天皇 6년 5월 庚午 御阿胡行宮時 進贄者紀伊国牟婁郡人阿古志海部河瀬麻呂等 兄弟三戸 服十年調役雜徭 復免挾抄八人 今年調役

그렇다면 이러한 水수가운데에서 円仁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丁雄萬을 자신의 종자로 뽑아 求法の 길에 동행시켰던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 4. 從者로서 丁雄萬의 역할

入唐후 水수에서 円仁의 시종이 된 丁雄萬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丁雄萬의 足跡을 쫓아가며 그가 円仁의 종자로서 수행한 역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1) 行者

『巡礼行記』에 丁雄萬이 ‘水手’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開成 4년(839) 4월 5일 조가 마지막이다. 그 기록에는 건당사선이 귀국을 위해 도항할 때 円仁, 惟正·惟曉, 水手 丁雄滿 네 사람은 구법순례를 계속하기 위하여 몰래 下船하고 있다(사료3 참조). 그 후 同年 7월에 登州 文登縣의 赤山法花院에 머물며 円仁이 문등현의 관리에게 문등현에 머물고 있는 이유 등을 기록한 狀에는<sup>21)</sup> ‘日本国僧一人 從小師二人 行者一人’이라고 적고 있어 이것이 바로 行末에 記名되는 ‘日本国僧円仁 從僧惟正 僧惟曉 行者丁雄萬’에 해당하는 것이다(사료5 참조). 즉 丁雄萬에 대한 칭호는 개성 4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水수에서 行者로 변화하고 있고, 이것은 『巡礼行記』를 기록한 円仁이 丁雄萬에게 가지고 있던 의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行者는 보통 從者나 侍從, 僭從 등 과도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行者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行者란 『釈氏要覽』卷上 師資条에<sup>22)</sup>

21) 『巡礼行記』卷2 開成 4년 7월 28일; 同年 7월 20일 狀

22) 『釈氏要覽』卷上 師資条 … 行者 善見律 有善男子 欲求出家 未得衣鉢 欲依寺中者 名畔頭 波羅沙 未見訳語 今詳 若此方行者也 經中多呼修行人 為行者 …

行者란 律에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어떤 善男子가 出家하려고 하지만 아직 衣鉢을 얻지 못하고 절에 머물러 있는 자로서 그 이름을 畔頭波羅沙라고 한다. 그 訛語를 볼 수 없다. 지금 생각해 보건대 이쪽에서 行者라고 부르는 것이다. 經 중에는 修行하는 사람을 行者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라고 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의 行者는 出家를 목적으로 한 俗人으로 仏道를 수행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다.

또 『禪林象器箋』第七類 職位門 行者條에는<sup>23)</sup>

내(忠)가 생각하기에 禪林에서 行者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修行을)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그 이후에 무릇 수계를 받고자 하지만 度牒을 얻지 못하고 머리를 기른 채로 절에 머물러 있는 자를 行者라 칭한다. 旧說에 이르기를 중국의 行者와 일본에서 이른바 行者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行者는 머리를 깎았으나 평상시의 행동은 俗人과 같다. 중국의 경우에 무릇 머리를 깎은 자는 僧侶와 沙彌만이 있을 뿐이어서 行者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깎지 않고 모자를 쓰지 않으며 그 머리를 둘로 갈라서 길게 등 뒤로 늘어트린다

고 하여 行者는 불도의 수행자라고 밝히고 있다. 구설에는 또한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 ‘行者’가 갖는 의미의 차이가 지적되어 있다. 즉 일본에서 行者는 머리를 깎고는 있지만 행하는 것은 속인과 마찬가지로이다. 한편 중국에서 머리를 깎는 것은 승려와 사미뿐으로 行者는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카락을 둘로 나누어 등 뒤로 내리는 스타일을 한 일반인이었다. 이들 사료를 통해 볼 때 行者란 出家를 목적으로 하여 불도를 수행하는 자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小野勝年氏는 『巡禮行記』등에 보이는 行者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小野氏에 의하면 “円仁의 경우 行者는 從僕인 丁雄萬을 가리킨다. 丁雄萬이 円珍을 따라 다시 入唐하였을 때에는 訛語의 입장이었고, 그 때 円珍에게는 따로 行者로서 的良·物忠宗·大全吉 등이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

23) 『禪林象器箋』第七類 職位門 行者條 … 忠曰 禪林行者 廬能爲始 爾後凡求剃度 而未得買度牒 有髮而依止僧寺者 稱爲行者 旧說曰 中華行者 与日本所謂行者別 日本行者 剃除髭髮 而行事同俗 中華則凡剃髮者 唯有僧及沙彌 而已 如行者 則不剃落 不披帽 其髮岐二 長下垂背後 …

서 말하는 行者는 요컨대 在俗의 從者 또는 從僕의 뜻에 틀림없다”고 한다.<sup>24)</sup>

과연 行者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사료에 보이는 다른 行者의 예를 검토해 보자.

行者는 『六国史』나 『類聚三代格』 등에는 보이지 않는다. 最澄이 遣唐求法僧으로서 台州의 州府에 제출한 牒<sup>25)</sup>에 ‘行者丹福成’이라는 기록이 처음으로 보인다. 丹福成은 이 이전에는 ‘從者’라고 기록되어 있어<sup>26)</sup> 이를 통해 行者는 종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巡礼行記』에 行者라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丁雄萬의 경우뿐이지만, 그 역할이나 당에서의 활동의 실체를 보면 그 대부분은 使者로서의 역할이다.<sup>27)</sup> 行者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巡礼行記』에는 承和 遣唐使의 留学僧이었던 円載의 行者로 추정되는 伴始滿에 대한 기록이 있다.<sup>28)</sup> 伴始滿은 僊從으로 기록되어 있다.<sup>29)</sup> 후술하겠지만 이는 僊從과 行者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이다.

『行歷抄』에는 円載의 行者로서 陳宝라는 인물이 보이는데, 그는 円載의 使者로서 大中 7년(853) 당시 渡唐하고 있던 円珍에게 書狀을 보내주고 있다.<sup>30)</sup> 또 円珍의 行者로서는 丁雄萬 이외에 的良·物忠宗·大舍吉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sup>31)</sup>

이렇게 平安時代 前期에 보이는 行者는 그 전체가 入唐한 승려를 따라 기록에 나타나 있고, 이 이외에 견당사의 官人(大使, 判官 등)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다. 이것은 行者가 앞서 사료에서 본 것처럼 불도의 수행자의 명칭이었던 것에서 유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 기재되었던 사료의 대부분이 公的인 문서(台州·揚州 등의 州府로 보낸 狀이나 州 로부터의 過所 등)로 이것으로부터 이들

24) 小野勝年(1989) 『入唐求法巡礼行記の研究』~第1卷, 法藏館, p.90

25) 『平安遺文』~卷1, 18号

26) 『平安遺文』~卷1, 11号 『唐明州過所』

27) 『巡礼行記』~卷3 会昌 元年 5월 1일; 卷4 会昌 6년(846) 2월 5일, 同年 6월 17일, 大中 元年 7월 13일 등

28) 『巡礼行記』~卷2 開成 5年 4월 23일

29) 『巡礼行記』~卷1 開成 3年 8월 4일

30) 『行歷抄』~大中 7년 12월 11일

31) 『平安遺文』~卷1, 110号 『唐国台州牒』; 『平安遺文』~卷1, 121号 『唐国越州都督府過所』

사료에 보이는 ‘行者’는 唐에서도 통용되는 명칭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당시의 行者라는 의미는 唐의 行者의 모습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 行者의 역할은 使者·從者로서의 활동이 주였던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行者는 從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小野勝年氏의 견해처럼 從僕이라는 의미만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行者는 어디까지나 그 본질은 승려에 대해 불도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강했을 것이다.

## (2) 僊從

종래의 연구에 있어서 丁雄萬이 僊從이었을까 아닐까에 대해서는 몇몇 의견이 제기된다. 먼저 小野勝年氏에 의하면 “견당사에 있어서 上級の 幹部는 從僕을 거느릴 수 있었고, 請益僧 및 留學僧의 경우에는 沙弥나 僊從을 둘 수 있었다. 最澄의 경우는 義真이 沙弥로 두고, 丹福成을 僊從으로 두었다. 円仁은 惟正과 惟曉를 사미로, 丁雄萬을 僊從으로 두었다. 유학생인 円載도 또한 仁好와 順昌을 사미로 두었다”<sup>32)</sup>고 하여 請益僧·留學僧의 從者에는 沙弥와 僊從 두 종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小野氏는 丁雄萬을 円仁의 僊從으로 보았다.

이러한 小野勝年氏의 견해에 대해 石野雅彦氏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石野氏는 “丁雄萬을 僊從이라고 생각하는 설이 있고 遣唐大使에게는 僊從의 任命權이 있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巡禮行記』에서는 원래 円仁의 제자승인 惟正·惟曉를 僊從으로 기록하고, 이에 대해 丁雄萬을 僊從으로서가 아니라 일관하여 行者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丁雄萬은 僊從은 아니다”라고 하여<sup>33)</sup> 丁雄萬을 僊從이 아닌 行者로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두 견해가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僊從’이라는 신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32) 小野勝年(1989) 『承和遣唐使の經過』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第4卷, 法藏館, p.384

33) 石野雅彦(1996) 『遣唐使の中の僊從(僊人)- 『入唐求法巡禮行記』を中心に-』 『史學研究集録』 21, p.12

해 견당사의 僮從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34)</sup> 『延喜式』에 의하면 入唐使에게만 僮從을 허락하고 있다.<sup>35)</sup> 『巡礼行記』~중에는 모두 9인의 僮從의 예가 보이는데 그 주인은 大使·判官·史生·船師·留学僧·請益僧 등 다양하다. 따라서 僮從을 반드시 관인들만이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사정은 『巡礼行記』에 ‘官人已上’과 ‘僮人已下’라는 두 계층이 존재하는 것이나,<sup>36)</sup> 留学僧·請益僧의 僮從이 승려였던 것<sup>37)</sup>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僮從은 僮從으로서의 역할만인 아니라 일반적인 使者들이 행하는 여러 다른 역할도 담당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從僕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 같지는 않다.<sup>38)</sup>

이러한 僮從의 신분이나 역할을 기초로 하여 『巡礼行記』에 보이는 丁雄萬의 경우를 판단해 보면, 丁雄萬은 확실히 石野氏가 말한 것처럼 ‘僮從丁雄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僮從僧惟正 惟曉 水手丁雄萬’이라는 기록<sup>39)</sup>은 丁雄萬까지 僮從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円載·円仁의 종자 전원을 ‘僮人’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sup>40)</sup>도 있으므로 丁雄萬은 僮從인 동시에 行者였다고 할 것이다. 丁雄萬이 이러한 두 역할을 담당하게 된 이유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行者란 불도의 수행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丁雄萬이 불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仏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sup>41)</sup>이라고 생각된다. 円仁과 丁雄萬의 관계는 단순한 主人과 僮從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불심을 통해 맺어진 인간적인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円仁은 다른 많은 水手들 가운데에서 丁雄萬을 자신의 行者로 선택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丁雄萬이 여러 水手들 중에서 円仁의 行者로 변모하게 된 원인 중 하

34) 石野雅彦 앞의 논문의 내용에 의거해 전개

35) 『延喜式』~卷30 大藏省式 入諸蕃使

36) 佐伯有請 앞의 논문; 『巡礼行記』에서 ‘僮從’과 ‘僮人’의 구별은 엄밀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서는 뜻으로 파악한다.

37) 예를 들면 留学僧 円載의 僮從으로서는 沙弥인 仁好·順昌, 請益僧 円仁의 僮從으로서도 沙弥인 惟正·惟曉가 기록되어 있는 점 등

38) 石野雅彦 앞의 논문, p.13

39) 『巡礼行記』~卷1 開成 4년 4월 5일

40) 『巡礼行記』~卷1 開成 3년 8월 24일

41) 平沢加奈子 앞의 논문, p.64

나로서 그의 외국어 능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는 이후 丁雄萬이 円珍의 訳語로서 다시 入唐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円仁의 중국어 능력이다. 물론 거의 10년에 이르는 구법활동 기간을 생각할 때 円仁은 당에 체류하면서 상당한 어학력을 갖추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承和遣唐使의 일원으로 入唐이 결정되었을 당시의 円仁은 당시 唐의 漢文에 대한 의미나 漢音은 파악하고 있었으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円仁은 弘仁 4년(813) 20세의 나이로 年分度試에 합격했다.<sup>42)</sup> 年分度試는 엘리트 승려들에 대한 일종의 得度 시험이라 할 수 있다. 몇 차례 개정되기는 했지만 年分度試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불경에 대한 이해력을 요구하였다. 특히 大同元年(806) 정월 26일의 勅에 의하면,<sup>43)</sup> 승려들은 『法華經』과 『金光明經』의 漢音 및 그 訓을 읽을 수 있어야 하며 10개의 大義를 묻는 질문에 5개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大同元年의 勅이 반포된 이후에 이 年分度試에 합격한 円仁은 적어도 漢音 및 그 訓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어학력은 갖추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巡礼行記』에는 円仁의 어학력이나 唐에서 회화의 가능 정도를 알만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가 筆談을 통해 현지의 관료나 승려 등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은 자주 눈에 띈다.<sup>44)</sup>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円仁은 당시의 중국어를 읽고 쓸 정도의 어학력은 가지고 있었으나 회화는 불가능했던 것 같다.

円仁을 수행했던 沙弥僧인 惟正과 惟曉의 어학력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록은 없다. 따라서 이들도 漢音 및 그 訓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거나, 아니면 스승인 円仁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어학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承和遣唐使와 함께 파견되었으므로, 건당사일행과 행동을 함께 할 때에는 아무런 제약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承和遣唐使船에는 訳語와 新羅訳語가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의사소통에는 아무런 제약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42) 湯沢質幸(2001) 『古代日本人と外国語』, 勉誠出版, p.173

43) 『日本後紀』卷13 大同元年 正月 辛卯 勅 … 仍須各依本業疏 誦法華金光明二部經 漢音及訓 經論之中 問大義十條 通五以上者 乃聽得度 … 若有習義殊高 勿限漢音 受戒之後 皆令先必誦 誦二部戒本 誦案一卷羯摩四分律鈔更試十

44) 『巡礼行記』卷2 承和 5년 7월 14일, 10월 14일, 開成 4년 윤정월 21일 등

그러나 이러한 견당사일행과 헤어져 불법체류하며 구법활동을 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물론 円仁이 筆談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는 하지만 당시의 모든 唐人이 漢字나 漢文을 해독하고 있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필담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天台山에서 長安까지 여행을 하는데 간단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從者가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丁雄萬은 아니었을까? 순례 중 매일의 식사나 숙소의 수배, 일행의 여행허가증(過所)이나 관청과의 사이에 필요한 문서의 수발 등을 담당하는 데에는 현지인과 교섭을 하고 목적지를 찾아갈 정도의 중국어 능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그가 한반도계의 渡來人 출신이라면 능숙하지는 않더라도 한반도의 언어도 습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견당사선에는 渡來系の 水夫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sup>45)</sup> 金正南, 朴正長, 道玄 등 신라역어<sup>46)</sup>가 동승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견당사에게는 중국어 뿐 아니라 신라어도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만약 丁雄萬이 신라인들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면, 구법기간 중 많은 在唐新羅人과의 교류나 그들의 원조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이 円仁으로 하여금 수많은 水手들 중에서 丁雄萬을 자신의 行者로 발탁하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丁雄萬이 지니고 있던 仏心과 외국어 능력, 그리고 円仁과 함께 한 구법여행을 통해 얻게 된 인맥과 당에 대한 정보, 능숙한 중국어가 이후 그가 円珍과 함께 재차 입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 것은 아닐까?

### (3) 訳語

円仁 일행과 함께 거의 10년에 이르는 구법 여행을 끝마치고 귀국한 丁雄萬은 仁壽 3년(853) 이번에는 円珍과 함께 다시 入唐하고 있다(853~858).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円珍이 在唐中에 기록한 『行歷抄』나 당의 관청에 제출한

45) 佐伯有清 앞의 논문, p.45

46) 『巡礼行記』卷1 承和 5년 6월 28일

여러 공문서 등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円珍의 入唐留學에 다시 동행하게 된 丁雄萬은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訳語’와 ‘行者’로 기록되어 있다. 먼저 先學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 ‘訳語’의 의미부터 살펴보자.<sup>47)</sup>

‘訳語’의 역할은 언어를 달리하는 집단과의 通訳官으로서, 고대 일본에는 唐·新羅·渤海·蝦夷·南島 등에 대해 설치되었던 職名이다.

또한 사료에는 曰佐 = ‘오사’를 가바네(カバネ)로 하는 씨족이 보이므로, 이를 통해 통역의 기술을 伝習하는 집단(曰佐集團)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율령제정 초기에는 訳語나 通事의 供給源이 되었지만, 곧 曰佐氏는 대외관계의 장에 등장하지 않게 되었고, 이들을 대신하여 渡海의 경험이 풍부한 자들이 선발되어 대외교류나 견당사의 파견 등에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曰佐集團 내에서 전승되고 있던 언어(외국어)가 시대가 흐름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해주는 사료로서 最澄이 台州의 州府에 제출한 첩에는 ‘訳語僧義真’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平安時代 初期에는 특정집단의 출신보다는 실제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자가 訳語의 職에 있었을 것이다.

丁雄萬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訳語로서 발탁되었을 것이다. 그는 仁壽 3년(853, 唐 大中 7년) 7월부터(사료21 참조) 12월에 걸쳐 江州나 福州 등에 제출한 円珍의 牒<sup>48)</sup>에는 從者의 한사람으로 ‘訳語丁滿年四十八’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태주에서 円珍에게 보낸 牒<sup>49)</sup>에는 ‘勘得訳語人丁滿狀’이라 기록하고 있으므로, 태주의 관인 역시 円珍의 牒과 함께 丁滿이 기록한 구체적인 狀을 기초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에 丁雄萬이 ‘訳語’로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그 후 大中 9년(855)에 円珍이 越州都督府로부터 過所를 받았을 때(사료24 참조), 丁雄萬은 ‘行者’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태주에서의 牒이 참고가 될 것이다. 이 첩에는 丁雄萬을 역어로 기록하고 있

47) 遠山美都男(1998) 『日本古代の訳語と通事』 『歴史評論』 574, pp.50~67; 同(1992) 『日本古代国家における民族と言語』 『学習院大学文学部研究年報』 38, pp. 21~32

48) 『平安遺文』 卷1, 103号~109号

49) 『平安遺文』 卷1, 110号

지만, 당시 州府에서는 이 일행에 대해 ‘円珍 등 僧侶 3인과 行者 4인 합하여 7인’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丁雄萬은 ‘訳語인 동시에 行者’로서 태주의 州府에 인식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인식은 다른 州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월주에서 발행한 過所에 명확하게 ‘行者’로 표기되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태주까지 円珍의 從者로서 동행해 온 자는 모두 7인이지만, 円珍이 태주에 제출한 첩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円珍과 함께 天台·五台山으로 순례를 한 것은 丁雄萬을 포함한 4인뿐이고, 나머지 3인은 国清寺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의 바람은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월주도독부로부터 발급된 過所에는 円珍과 丁雄萬 두 사람만이 기록되어 있다. 월주에 이르기까지 그들 4인도 두 사람씩 나뉘어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円珍의 行者는 丁雄萬 한사람이 되었고, 訳語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하여 ‘行者’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丁雄萬은 이후에도 円珍이 天安 2년(858)에 귀국할 때까지 訳語 겸 行者로서 행동을 함께하고 있었다.

## 5. 맺는말

이상의 고찰을 통해 丁雄萬의 출신이나 배경 및 그가 당에서 유학승의 종자로서 행한 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丁雄萬은 豊前国 출신의 선원(水手)으로서 承和遣唐使 일행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円仁에 의해 그의 行者가 되어 在唐기간 중 늘 円仁과 동행하였다. 귀국한 후 다시 円珍의 入唐留学에도 동행하여 訳語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丁雄萬이 円仁의 종자로 임용된 이유는 그가 渡来系 씨족이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고 하겠지만, 그의 仏道에 대한 깊은 歸依의 마음이 円仁에 전해져 불도의 수행자로서 行者에 발탁되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기초적인 중국어나 신라어 등의 외국어 능력도 갖추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円仁은 水手이던 丁雄萬을 자신의 종자로 삼아 함

게 구법순례하였고, 이러한 중국에서의 경험과 중국어 능력은 그가 円仁만이 아니라 재차 円珍의 入唐留學에도 참여하는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円仁和 丁雄萬 사이에는 불심을 통한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했고,<sup>50)</sup> 그러한 인연과 丁雄萬이 지닌 외국어 능력과 외국생활에서 얻은 실제적 경험이 円仁의 뒤를 이어 入唐留學하는 円珍의 訳語 겸 行者로서 동반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円仁과의 거의 10년에 이르는 在唐 생활 속에서 중국어가 몸에 익었을 것이고, 그러한 語學力과 현지의 풍부한 경험과 인맥은 円珍의 입당유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円珍 또한 円仁이 당에서 방문했던 절을 많이 순례하고 있다. 그 때 각 절의 승려들과 이전에 円仁의 ‘行者’로서 동행했던 丁雄萬도 교류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丁雄萬이 長安에서 円仁의 眞言의 스승이었던 法全法師와 만났을 때 ‘若是円仁闍梨行者否<sup>51)</sup>’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丁雄萬이 法全法師와 재회할 수 있었던 것에 의해 円珍과 法全法師와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행해졌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丁雄萬의 존재는 더욱 주목해야만 하는 것이다.

円珍과의 入唐이후 그의 활동은 더 이상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円仁·円珍의 入唐留學과 求法巡禮에 있어서 종자인 丁雄萬의 존재와 그가 담당했던 역할은 필요불가결한 것이었다.

### 참고문헌

- 김문경(2001) 『역주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 중심, pp.19~538  
 권덕영(2005) 『재당 신라인사회 연구』, 일조각, pp.5~318  
 木宮泰彦(1950) 『日華文化交流史』, 富山房, pp.74~214  
 小野勝年(1964~1969) 『入唐求法巡禮行記の研究』, 鈴木學術財団, pp.3~499

50) 石野雅彦, 앞의 논문, p.15

51) 『行歷抄』~大中 9년 5월 25일

- \_\_\_\_\_ (1983) 『入唐求法行曆の研究』, 法蔵館, pp.1~255
- 佐伯有清(1978) 『最後の遣唐使』, 講談社, pp.1~153
- \_\_\_\_\_ (1989) 『円仁』, 吉川弘文館, pp.1~291
- \_\_\_\_\_ (1990) 『円珍』, 吉川弘文館, pp.1~281
- E・O・ライシャワー(1984) 『円仁 唐代中国への旅』, 講談社, pp.33~458
- 森公章(1998) 『古代日本の対外認識と通交』, 吉川弘文館, pp.139~160
- 湯沢質幸(2001) 『古代日本人と外国語』, 勉誠出版, pp.169~218
- 佐伯有清(1983) 『承和の遣唐使をめぐる諸問題』, 『日本古代政治史論考』, 吉川弘文館, pp.43~59
- 遠山美都男(1992) 『日本古代国家における民族と言語』, 『学習院大学文学部研究年報』, pp.21~32
- \_\_\_\_\_ (1998) 『日本古代の訳語と通事』, 『歴史評論』574, pp. 50~67
- 松原弘宣編(1995) 『瀬戸内海における交流の展開 古代王権と交流6』, 名著出版, p.99, pp.110~131
- 石野雅彦(1996) 『遣唐使の中の僊従(僊人)』, 『史学研究集録』21, pp.10~24
- 馬一虹(1999) 『古代東アジアのなかの通事と訳語』, 『アジア遊学』3, 勉誠出版, pp.110~131
- 平沢加奈子(2003) 『渡唐における従者の活動-丁雄万を題財として』, 『古代東アジアの国家と異文化間交流』, 東アジア異文化間交流史研究会, pp.63~68

- ❖ 투고일 : 2007. 12. 31.
- ❖ 심사일 : 2008. 1. 25
- ❖ 심사완료일 : 2008. 2. 11.